

## 제11강 논어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

(1교시)

### ◆논어 강독과 무위·군자의 의미

※ 학습목표: 논어를 통해 공자의 사상을 살피고 논어에 대한 다각도의 해석을 본다.

#### ▲ 논어에 나타난 무위사상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居其所 而衆星共之(자왈 위정이덕 비여북신거기소 이중성공지)

-이 구절은 무위 사상과 연관된다. 노자의 무위는 위 바깥에 있다. 그러나 공자는 무위도 **하나의 위로 본다**. 모든 것은 유에서 나오지만, 유는 무에서 나온다는 생각이다. 이는 고대 춘추전국시대의 정치철학의 기본 태제이다.

-도가道家の 무위는 사소한 덕목에 얽매이지 않는 큰 행위를 말한다. 법가法家の 무위는 지도자가 법의 권세만 지니고 법에 따라 진행할 뿐 자신의 감정이 얽힌 행위를 하지 않음이다. 그래서 법가의 무위는 법 자체의 작동이다. 병가兵家の 무의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남을 하게 만드는 계략이다. 유가儒家의 무위는 **마음으로부터 승복시키는 것이다**.

#### ▲ 법치국가에 대한 의견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

-예가 아닌 정으로 이끌고 형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법망을 피하려 할 뿐 부끄러움을 모른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면 부끄러움을 안다.

-법으로 통치하는 법가의 사상이 사회과학적 맥락의 정치와 관계있다면, 유가 사상은 인문과학적 맥락의 이해를 궁극적으로 놓는다. 그것 없이 법이 의미가 없게 된다.

#### ▲ 군자의 의미

子曰 君子不器(자왈 군자불기)

-기는 실용적인 지식이다. 그런데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특정한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점을 막스 베버는 비판한다. 베버의 눈에는, 서구적 자본주의의 실용성의 눈에는 유교적 예와 인이 하나의 심리적·미학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사회발전을 이루는데 오히려 결정적인 저해가 된다.

-하지만 전문가적인 사고, 자신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고는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없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다. 풍요롭지만 빈곤하고, 화려하지만 어둡다. 공자의 말은 전문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자는 **삶 전체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계층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계층이 군자다**.

-근대적 직업개념을 중시하고 서구적 소명의식을 집어넣어 자본주의의 눈으로 보는 베버의 해석은 주된 가치관의 문제다.

참고자료

Max Weber(1864.4.21~1920.6월14)독일의 사회과학자

